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너의 울음을 멎게 할 순 없지만 우리 같이 흐르자**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13~16쪽
  - 언어와 매체..... 17~20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화는 본래 환히 맑기에,                      梅花本瑩然  
달에 비치니, 물빛인 듯하네.                      映月疑成水  
서리와 눈이 흰 자태를 더해 주어,                      霜雪助素艷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뺨속에 스며드네.                      清寒徹人髓  
이 꽃을 대하면 마음을 씻어 주니                      對此洗靈臺  
㉠오늘 밤은 한 점의 양금도 없네.                      今宵無點滓  
- 이이, 「매초명월(梅梢明月)」

(나)

춥다.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잡념과 머리카락이 희어지도록 걷고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될까? 너무 넓은 밤, 사람들은 밤보다 더 넓다.

[A]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이름을 말하고 이름을 듣는 사람들  
이름을 두세 개씩 갖고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

깊은 산에 가고 싶다. 사람들은 산을 다 어디에 두고 다닐까? 혹은 산을 깎아 대체 무엇을 메웠을까?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날린다.

㉢눈꽃, 은방울꽃, 안개꽃, 메밀꽃, 배꽃, 짚레꽃, 박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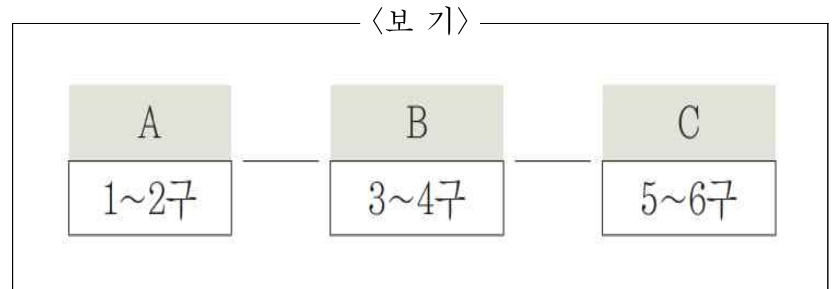
나는 하루를 하루 종일 돌았어도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때까치, 바람새, 까투리, 오소리, 너구리, 도토리, 다람쥐, 물

- 신대철, 「추운 산」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동일 시어와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여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2. (가)의 시상 전개를 <보기>와 같이 나타낸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연물과 자연물이 서로 어우러져 형성된 외부정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② A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B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와 C에는 화자가 대상을 마주하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④ B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이, C에서는 거리감이 부각되고 있다.
- ⑤ C에서는 자연물에 반응하는 화자의 내면이 제시되어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눈’은 차가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생명체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눈의 시련을 이겨 낸 생명체의 생명력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눈’은 흰색이기 때문에 깨끗함의 속성이 부여되기도 하는데, 이 깨끗함은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표상한다. 또한 세차게 내리는 ‘눈’의 매서움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정진의 치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가)의 ‘눈’은 매화에 ‘흰 자태를 더해’ 준다는 점에서 매화가 가진 깨끗함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② (가)의 ‘눈’의 차가움의 속성에 주목할 때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뺨속에 스며드네.’는 추위로 상징되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내적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③ (나)에서 화자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진 ‘눈사람’이 되려 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
- ④ (나)에서 화자는 ‘깊은 산’을 자신이 지향하는 고결한 삶을 위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⑤ (나)의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에서 눈발 날리는 ‘추위’는 자기 정진을 위해 선택한 치열한 외적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4. ㉠과 ㉡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애상감을 표출하는 시간이고, ㉡는 화자가 상실감을 표출하는 시간이다.
- ② ㉠은 세속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는 시간이고, ㉡는 세속에 대한 욕망이 표출하는 시간이다.
- ③ ㉠은 일상적 삶의 어려움을 떠올리는 시간이고, ㉡는 일상적 삶의 소중함을 떠올리는 시간이다.
- ④ ㉠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고, ㉡는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는 시간이다.
- ⑤ ㉠은 화자가 내면의 정화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는 화자가 내면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다.

5. (나)의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형상화되어 있다.
- ② 화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들이 제시되고 있다.
- ③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들이 제시되어 있다.
- ④ 화자가 긍정과 포용의 마음으로 감싸 주려는 대상들의 면모를 알 수 있게 한다.
- ⑤ 타인과의 소통 실패로 인해 내적으로 갈등하며 후회하는 존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세속적 삶 속에서 사람들이 잊고 사는 존재들이다.
- ② ㉡은 ㉠과 달리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들을 상징한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바라는 삶을 표상하는 자연물이다.
- ④ ㉠과 ㉡은 모두 공동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외면하는 존재들이다.
- ⑤ ㉠과 ㉡은 모두 미래의 삶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기대와 희망을 보여 주는 자연물이다.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45년 **알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여러 현안에 전격 합의했다. 그들은 미국, 영국, 소련에 더해 프랑스가 독일 분할 점령에 참여하는 것에 합의했는데, 독일 분할 점령의 목적은 독일을 비무장화, 비군사화, 그리고 분단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제 연합의 창설과 표결 방식도 합의되었다. 3국 정상들은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로써 1939년 소련의 폴란드 동부 점령 이후의 국경을 의미하는 ‘커즌선’이 소련과 폴란드의 경계로 확정되었고, 소련이 앞서 인정했던 친소 임시 정부, 즉 루블린 정부를 재조직하는 선에서 폴란드 정부 수립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는, 친소계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티토와 비공산주의 계열 망명 정부가 함께 참

여하는 새 정부를 수립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소련은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 했다. 대신 서유럽 및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알타 회담 직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 협정을 통해 미국은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약속받았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동반자로 삼음으로써 그가 알타에서 목적했던 바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끝내는 데 소련의 도움을 약속받은 것은 루스벨트가 알타에서 이루어 낸 성과였다. 당시 미국은 일본 열도 점령 과정에서 자국군의 커다란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만주에 주둔한 관동군의 존재는 미국의 걱정을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일본전 참전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루스벨트는 자신의 전후 계획의 핵심이었던 국제 연합에 소련이 참여하는 것을 확정했다.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정치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루스벨트는 새로운 국제기구, 즉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국제 연맹과는 달리 전쟁 방지를 위한 실제적 권력을 가지는 국제 연합을 창설할 계획이었다. 루스벨트는 국제 연합을 통해 약소국들이 특정 국가의 세력권 아래에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고,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강대국들의 협조 정치 및 신탁 통치 체제로 전환하고자 했다. 그 결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구식민지 지역에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이 사라지게 되면 그곳은 미국 자본의 새로운 투자지, 즉 자본 수출 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루스벨트 입장에서 알타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서유럽을 자유 무역 체제에 안정적으로 포함시킨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는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이제 막 파시즘 지배에서 벗어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대(對)파시즘 저항의 중심이었던 공산주의자들이 크나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목인을 얻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독려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소련은 동유럽 완충 지대의 확보와 독일 무력화라는 자국의 최우선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알타에서 스탈린은 미국이 희망한 ㉡신질서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스탈린은 루스벨트로부터 소련이 그간 주장해 왔던, 국제 연합에서의 비토권\* 원칙을 받아 낼 수 있었다. 이로써 소련은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제 연합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결에 거부할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 1930년대 말 국제 연맹에서 축출되어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소련은 이제 비토권 확보를 통해 그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알타 회담 결과, 영국은 국제 질서의 조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여러 문제에서 처칠을 주변화시키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루스벨트는 영국을 아시

아 문제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이는 영국이 일본과의 직접 교전국이었으며, 홍콩을 비롯한 동아시아 이권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 입장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였다. 루스벨트는 한반도 신탁 통치 참여국에서도 영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일본전 참전을 약속한 소련만을 동반자로 삼았다. 스탈린 역시 미국의 국제 연합 창설 방안에 적극 동의하는 과정에서 구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영국의 집착에 타격을 가했다. 처칠은 국제 연합의 창설이 홍콩 및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 등 영국 제국의 이권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으나, 스탈린은 이를 세계 지배욕이라는 표현으로 비아냥거렸다. 영국이 희미하게나마 붙잡고 싶어 했던 제국주의 질서는 이제 미국이 주창하고 소련이 화답한 국제 연합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알타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국제 연합 계획이 관철된 것과 이에 소련이 적극적으로 찬동한 것, 그리고 그 거래의 대가로 미국이 동유럽을 소련 세력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외관상 알타 회담은 3국 정상의 합의하에 협력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회담에서 분명한 패자는 영국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을 주변으로 밀어내면서 미소 양대 강국 중심의 국제 체제를 탄생시켰다.

\*비토(veto)권: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질서에 대한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국제기구 내에서 자국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타협해 온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인해 약소국들의 이권이 배제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미소 양대 강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미소 양 진영 간의 이념 갈등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세력과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이 바람직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세력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8. 알타 회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 정부 구성에 친소 세력이 참여하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 ②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에 소련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 측의 기대가 반영되었다.
- ③ 전후 독일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에 의해 점령되어 무장이 해제되고 분단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④ 실제적 권한을 지닌 국제기구로서 국제 연합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표결 방식에서 영국에 대한 소련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 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단축하기 위해 소련의 참전을 요구했고, 소련은 이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신탁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9.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1941년 6월 22일 독일 군대가 소련 국경을 넘을 때 그 규모는 전체 나치 병력의 80%에 해당했다. 소련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유럽 대륙 전장에서 사실상 홀로 나치 군대를 대적한 교전 당사국이었다. 소련의 인적 피해도 심각했다. 전쟁 기간 중 영국군과 미군의 전사자가 각각 40만 명 정도였던 데 비해, 소련군 소속 전사자는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르렀다. 민간인 피해에서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났다. 미국은 민간인 사망자가 사실상 없었고 영국은 그 수가 6,500명가량이었던 데 비해, 소련은 1,500만 명 이상이었다. 한 역사가의 표현을 빌리면, 1941년 6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소련 사람들은 '시간당 1,000명'꼴로 죽었던 것이다.

- ① 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국과 독일 사이에 완충 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②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자국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③ 서유럽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로 재편되는 것에 대항하여 동유럽을 통해 서유럽에 공산주의 세력을 진출시키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④ 독일 군대와 사실상 직접 교전한 당사국임에도 전후의 국제 질서 개편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10.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루스벨트는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에서 영국을 제외하려 했다.
- ② 루스벨트는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 자신이 구상한 자유 무역 체제에서 영국을 배제하려 했다.
- ③ 루스벨트는 아시아 문제에서 영국을 배제하면서 스탈린과의 비밀 협정을 통해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확정했다.
- ④ 스탈린은 영국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라고 조롱했다.
- ⑤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홍콩 및 수에즈 운하에서 영국의 이권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1. 문맥상 ㉠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진 국제 질서
- ② 강대국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줄이는 국제 질서
- ③ 미국 자본의 수출 대상지가 구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역에까지 확대되는 국제 무역 질서
- ④ 영국 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를 해체하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양국 중심의 국제 질서
- ⑤ 동유럽을 소련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련을 참여시킨 국제 연합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국제 평화 질서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하생은 집안이 한미(寒微)하고\* 조실 부모한 처지였으나 재주가 뛰어나 태학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어지러운 정치로 인해 등용되지 못해 불우한 나날을 보내다가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말을 듣고 도성 남문 밖 숲속의 인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된다.

날이 밝아 올 무렵 여인은 하생의 팔을 베고 누워 있다가 문득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하생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갑자기 왜 그러오?”

“이 집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 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군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요직을 지내며 권세를 누리셨는데, 아버지께 밭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이 몹시 많았

답니다. 원래 아버지는 5남 1녀를 두셨지만, 다섯 오빠가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저 혼자 아버지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네 부친이 큰 옥사(獄事)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 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못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부친의 지난 죄로 인해 죽은 다섯 아들은 이미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

저는 절하고 물러 나왔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생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생사를 걸고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그러자 여인은 베갯머리에서 금척(金尺)을 뽑아 하생에게 주며 말했다.

“서방님께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서울 저잣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뚝돌 위에 올려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 이 물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제 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알겠소.”

〈중략〉

“너는 어떤 사람이며, 이 물건은 어디서 얻었느냐?”

“저는 태학의 학생입니다. 그 금척은 무덤 속에서 얻었습니다.”

“너는 입으로는 시(詩)와 예(禮)를 말하면서 뒤로는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자란 말이나?”

하생은 웃으며 말했다.

“우선 결박한 몸을 풀고 어르신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매우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장차 제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생각하셔야 할 텐데 도리어 화를 내시는군요.”

시중은 즉시 하인들에게 분부를 내려 하생의 결박을 풀고 섬돌 위로 올라오게 했다. 마침내 하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찬찬히 말해 주었다. 시중은 차츰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남녀 종들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탄식했다. 그때 주렴 안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니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 죄를 물어 도 늦지 않겠어요. 저 선비의 이야기를 듣자니 평소 우리 딸아이의 용모며 옷차림과 의심의 여지 없이 똑같아요.”

시중이 말했다.

“그렇군. 즉시 삼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해라! 내가 직접 가 봐야겠다.”

시중은 하인 몇 명을 남겨 하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잠시 후 묘역에 이르러 보니 봉분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시중은 의아히 여겨 무덤을 파 보았다. 무덤 속의 딸은 안색이 산 사람과 같았다. 심장 있는 쪽을 만져 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 유모를 시켜 딸을 안게 하고 가마에 태워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해 질 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 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네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니?”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캐묻자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하생은 그 집 사람들에게 몹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 시중은 하생을 위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 대해 묻고, 또 하생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하생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부친은 평원 고을의 유생(儒生)으로 오래전에 작고 하셨다고 대답했다.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의논했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는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 다 해도 문제 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구려.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고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래서 나는 그냥 재물이니 후하게 주어 ㉡보답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부인이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녀자가 어찌 나서겠어요?”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며 하생의 소원을 물었는데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저버린 여인을 원망했다. 하생은 곧바로 절구 한 편을 지어 작은 종이에 쓰더니 여인의 유모더러 여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생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옥에 티끌이 묻었다 해서 더럽혀질 건 없나니  
 등지로 돌아간 봉황새가 난새를 다시 돌아볼 리 있겠는  
 [A] 가  
 팔뚝 위의 눈물 자국 사라지지 않았거늘  
 꿈속의 좋았던 만남 지금 외려 부끄럽네

여인은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의 사정을 물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인은 그 즉시 병들었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부모가 딸의 속마음을 짐작하고 병이 난 이유를 묻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모님의 큰 잘못을 남의 일인 양 원망하지 않는 것도 불효요, 부모님의 작은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도 불효입니다. 남의 일인 양 소원하게 대할 수 없어 말씀드리려는 건데, 지나치게 따지는 일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부모가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아라. 숨길 것이 무어 있겠느냐?”

- 신광한, 「하생기우전」

\***한미하고**: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하고.

### 1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중의 아들들은 시중의 잘못에 대한 옥황상제의 처분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 ② 하생은 여인의 부탁을 듣지 않아 결박당한 채 끌려오게 되었다.
- ③ 남녀 종들은 하생을 질책하는 시중의 심정에 공감하여 탄식했다.
- ④ 시중의 부인은 딸의 무덤이 훼손되는 것을 꺼려서 울음을 터뜨렸다.
- ⑤ 여인은 하생에 대한 연모로 인해 깨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하생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6세기의 전기 소설(傳奇小說)인 「하생기우전」은 부활, 혼사 장애 등의 화소(話素)를 천상계의 권능자인 옥황상제와 현실계에서 욕구를 실현하려는 하생, 여인 등과 연결하여 서사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 소설은 이승을 떠난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에 현실계 속에 비현실적 이계(異界)가 공존하고, 현실계와 비현실적 이계를 연결하는 매개물이 나타나며,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생기우전」은 임진왜란 이전의 일반적인 전기 소설과는 달리, 이승을 떠난 존재였던 여자 주인공이 부활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남자 주인공이 그녀와 혼인한 후 임신출세를 이루는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점에서 색다른 느낌을 준다.

- ① 하생이 여인에게 받은 금척은 현실계와 비현실적 이계를 연결하는 매개물로 볼 수 있겠군.
- ② 시중이 하생의 한미한 가문과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를 우려한 것이 혼사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군.
- ③ 하생과 여인이 만나 인연을 맺는 집은 생사가 다른 인물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점에서 비현실적 이계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여인은 천상계의 권능자에게 들은 정보를 통해 전생부터 이어진 하생과의 사랑을 현실에서 완성하려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시중이 하생의 말을 듣고 무덤을 팠을 때 여인의 심장에 온기가 있는 것은 임진왜란 이전의 일반적인 전기 소설과는 다른 부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겠군.

###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을 받는 대상은 동일한 인물이다.
- ② ㉠과 ㉡은 모두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 ③ ㉠과 달리 ㉡은 혼인을 대체하는 보상을 의미한다.
- ④ ㉠과 달리 ㉡은 받는 대상이 바라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⑤ ㉡과 달리 ㉠은 받는 대상의 성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

### 1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더럽혀질 건 없나니’는 하생이 자신을 모욕하는 시중에게 보복을 다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둥지로 돌아간 봉황새’는 하생이 다시 살아나 집으로 돌아온 여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시 돌아볼 리 있겠는가’는 하생이 여인에 대해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원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좋았던 만남’은 하생이 여인과 인연을 맺은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지금 외려 부끄럽네’는 하생이 여인과의 인연에 대해 후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성은 교잡과 같은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전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이다. 형질 전환을 이용한 식물 육종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탐색하고 복제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적 기법과 식물 조직 배양을 통해 체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외래 유용 유전자를 이식하여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킨 작물을 유전자 변형 작물(GMO)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형질 전환은 복제된 외래 유전자를 유전자 운반체에 옮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농업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래 유전자를 발굴하여 복제하는 단계이다.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를 가진 식물로부터 그 유전자를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를 분리하면 모든 유전자가 한꺼번에 추출되기 때문에 특정한 유전자를 찾아서 복제하는 유전자 복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제한 효소이다. 제한 효소는 DNA 중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복제한 유전자를 운반하고 식물 세포 내에서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이다. 원하는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운반하는 재조합 운반체로는 토양성 세균인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가 이용된다.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유전자 중 일부인 T-DNA를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하여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숙주 식물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만든다. 플라스미드는 T-DNA를 지니고 있는 작은 DNA로, 선형의 이중 나선 구조를 지닌 식물 세포의 DNA와 달리 원형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재조합 운반체를 만들기 위해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를 절단하고, 외래 유용 유전자와 절단된 플라스미드를 섞어 준다. 그리고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와 플라스미드를 결합시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만든다. 이때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는다.

세 번째 단계는 외래 유용 유전자가 식물에서 발현되도록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의 유전체로 이식하는 단계로서, ①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식물의 엽색체에 도입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아그로박테리아는 원래 옥신과 시토키닌, 그리고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하는데, 이식된 유전자들이 식물 세포에서 발현되어 생성된 옥신과 시토키닌은 식물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아그로박테리아가 살 공간을 마련해 준다. 또한 옥토

파인은 아그로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양분으로 질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체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줄기 혹은 뿌리에 비정상적인 혹을 만드는데, 이것이 근두암종이다. 아그로박테리아를 통해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방법은 옥신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 필요한 유전자를 박테리아의 유전자에 삽입하여 박테리아가 식물 세포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를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원리로 작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작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병에 걸리게 하는 이병성 유전자이거나 원하지 않는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경우, 이러한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해 주면 그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식물 세포를 증식하고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시킨 후 형질 전환된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이다. 항생제가 함유된 선발 배지에서 식물 세포를 배양하면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그 후 필요한 영양분과 식물 호르몬을 함유한 재분화 배지에서 선발된 세포의 재분화를 유도하면 하나의 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식물 조직 배양이라 하고, 세포가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될 수 있는 성질을 전형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②선발 배지에서 살아남았지만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실제로 외래 유용 유전자가 발현했는지를 확인하는 생물 검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얻어진 형질 전환 식물은 농업적인 성능 및 효용성, 안정성 검정을 거쳐 상품화를 위한 개체를 최종적으로 선발되게 된다. 선발된 개체는 정밀한 안정성 검사와 더불어 품종화가 이루어지고 종자 증식에 들어간다.

\*전사: DNA의 유전 정보가 mRNA로 옮겨지는 과정. 전사된 mRNA에 의해 세포질에서 해당 유전 정보를 지닌 단백질이 합성됨.

16.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형질 전환을 통한 품종 육종 기술에 미친 영향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식물 조직을 배양한 이후 유전자가 변형되어 형질이 전환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유전자 변형 작물의 DNA를 이용하여 특정 미생물의 형질 전환 방법이 개발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식물이 지닌 유전자를 변형하여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는 기술을 식물의 형질 전환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⑤ 교잡을 이용한 품종 육종법과 유전자 변형을 통한 육종법을 비교하여 유전자 변형 작물이 지닌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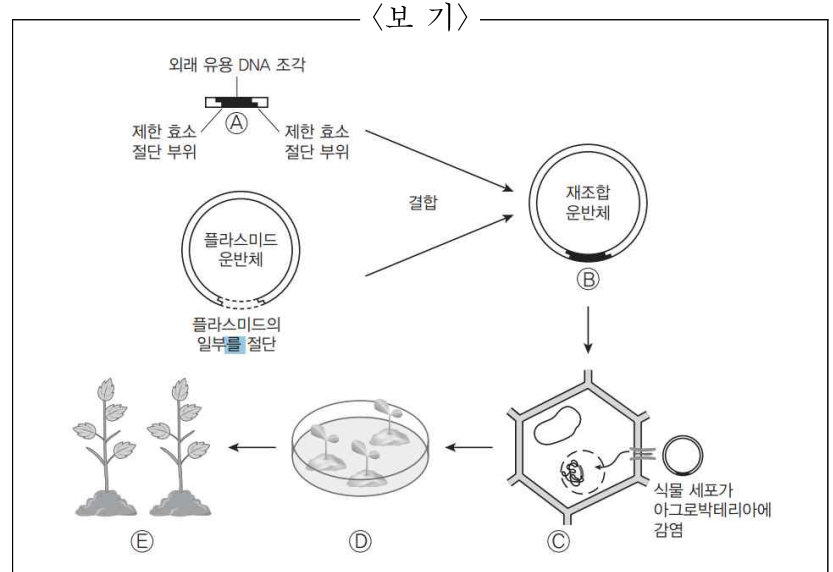
17.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형성을 지닌 식물 체세포 하나로부터 완전한 식물체가 재분화될 수 있다.
- ②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은 유전자 조작 기술과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을 전제로 한다.
- ③ 재조합 운반체는 특정 유전자가 세포에 이식될 수 있도록 해당 유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제한 효소는 DNA에서 특정 유전자를 분리하는 데 이용되며, DNA의 특정 위치의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
- ⑤ 재조합된 유전자 운반체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넣으면 재분화 배지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18. 아그로박테리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체에 근두암종을 유발하는 토양성 세균이다.
- ②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는 식물 세포의 DNA 구조와 구별되는 DNA 구조를 지니고 있다.
- ③ 식물체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옥토파인이 생성되면 아그로박테리아는 이를 이용하여 질소를 공급받는다.
- ④ 아그로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옥신과 시토키닌은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숙주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 비정상적인 혹을 만든다.
- ⑤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에 이병성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여 식물 세포에 이식하면 이 병성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 있다.

19.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신제품 개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육종하려는 식물체가 아닌 다른 식물체의 DNA에서 유용한 DNA 조각을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 ② B: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 중 일부를 절단하고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하여 그 부위에 외래 유용 유전자를 결합시킨다.
- ③ C: 식물 세포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가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된다.
- ④ D: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식물 세포를 선발한 후 배지에서 재분화시켜 완전한 식물체를 만들어 낸다.
- ⑤ E: 안정성 및 상품성이 인정된 개체를 선발하여 종자를 증식한다.

20. ㉠과 <보기>의 ㉡, ㉢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유전자 총을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은 외래 유전자를 텅스텐이나 금 분말 등의 미세한 금속으로 코팅한 후 식물 세포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다. 이때 금속 입자와 함께 외래 유전자가 식물체 핵 내로 이동하여 염색체에 삽입되며, 세포 재분화 과정을 거쳐 형질이 전환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금속 코팅을 통해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바이러스를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은 바이러스를 유전자 운반체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성숙한 식물체라도 한 번의 감염에 의해 대부분의 세포로 새로운 유전자의 도입 및 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외래 유전자가 식물 유전체 내로 삽입되지는 않기 때문에 종자를 통한 다음 세대로의 유전은 기대할 수 없다.

- ① ㉠은 ㉡와 달리 한 번에 한 종류의 외래 유전자만 식물체에 이식할 수 있겠군.
- ② ㉡는 ㉠과 달리 외래 유전자를 운반체에 재조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은 ㉢와 달리 성숙한 식물체에 외래 유전자를 바로 도입할 수 없겠군.
- ④ ㉠과 ㉢는 모두 유전자 운반체를 사용하여 식물의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방법이로군.
- ⑤ ㉢는 ㉠, ㉡와 달리 식물 조직 배양 단계를 거치지 않고 외래 유전자를 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군.

21. ㉠의 상황이 발생 가능한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발 배지에 항생제가 충분히 함유되지 않은 경우
- ②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발현된 반면 외래 유용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은 경우
- ③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은 세포가 선발 배지에서 사멸하지 않는 경우
- ④ 외래 유용 유전자와, 그것과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형질 전환 과정에서 동시에 이식한 경우
- ⑤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식물 세포는 살아남았으나 항생제에 의해 아그로박테리아는 사멸한 경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버지가 세 번째 국회 의원 출마를 위해 다시 채식을 시작한다. 가족들은 국회 의원에 출마할 때마다 채식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친은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나 미워하던 한 세계가 머지않아 붕괴하리라는 희미한 예감의 공포 앞에, 오로지 떨고 있었던 것이다. 체면 불구하고 부친이 출마했던 것은 아마 그 때문인 듯하다. 그 떨망이 상말로 시계 무엇처럼 점차 느껴져서, 설령 일곱 번이고 여덟 번이고 재출마해야 하는 그런 기우가 설마 부친에게 눈곱만큼이나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부친의 유일한 이해자는 숙당(淑堂) 조문제(趙文濟) 선생이었다. 조 선생은 중학교 한문 선생으로, 두루미처럼 버쩍 마른 모습으로 시의 언덕바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양반의 말을 빌려 보면, 부친의 망발(출마)은 단지 젊었을 때 글깨나 좀 읽었다는 탓일 따름이고, 모든 난점은 '흐르는 세월'이 심판해 준다는 것이다.

세월도 세월이러니와 선량\*에 대한 부친의 이런 엉뚱한 꿈이라든가 이를테면 그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채식' 같은 기묘한 방법은, 지금 곰곰 생각해 보니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다니엘서」에서부터 그 연유가 비롯한 성싶다.

[채식]에 관한 것뿐 아니라 흥흥한 난세의 여러 조짐에 대해 그 책은 괴상한 꿈 얘기라든가 기괴한 짐승들을 무수히 등장시켜 공갈을 치고 있는데 '그 이[齒]는 철(鐵)이요, 발톱은 놋[銅]이며,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라는 끔찍한 구절까지 있는 것이다. 학대받는 어느 민족의 이중 삼중의 설움의 메시지다. 하지만 부친이 정말 「다니엘서」를 독파했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부친은 홀로 무언가 유일한 것을 믿고 있는 듯하기는 했으나, 외할머니나 모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발 때문에 평생 절이나 교회 문턱을 피했고, 어쩌다 집 안에 종교적인 물건 - 이를테면 부적이라든가 찬송, 성경책이라든가 지등(紙燈) 따위가 보이더라도 하면 부리나케 그것을 어디엔가 감추어 버리곤 했으므로, 설마 당신이 방에 몰래 숨어서 '다니엘'을 읽어 치웠으리라고는 상상이 되지를 않는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것과 꼭 같은 어이없는 절규가, 허기와 오기와 무청중에 지친 부친의 유세장에서 번번이 흘러나오는 것을 나는 들었던 것이다.

"나를 사자 아가리에 처넣어 보시오! 펄펄 끓는 불 속에 나를 콧 던져 보시오! ㉠내한테 어디 평생 풀만을 먹여 보시오! 끄떡도 안 할 것이요, 나는. 여러분! ……"

그렇다. 얼음이다. 만상이 타는 듯한 열화에 기갈 들러 오직 한 개의 통풍 구멍만을 찾아 허덕이는 여름 대낮 같은 때 홀로 자전거 등받이에 서늘한 수정과 같은 거창한 물건을 싣고 달리면서 부친의 꿈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 결정체 속으로 스며들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나 출마할란다……" 하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의 그 계면적은 웃음, 우는 듯한 눈, 경악에 찬 가족들의 힐난의 시선에 이윽고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던 입술이 그것을 증명한다. 부친은 별식으로 모처럼 놓인 도미구이 접시를 한 옆으로 슬그머니 밀어 놓고, 허탈한 얼굴로 시금치 접시로 젓가락을 가져갔다. 그것이 신호였다. 누이와 나는, 4년마다 오는 부친의 그 구닥다리 같은 흥역을 또 치르게 되나 부다 하고, 부지중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리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서광삼 무표'니 '서광삼 3표'니 하는 이웃이나 학교 동료들의 조석 간의 인사가 아니다. 그것은 선거 소동이 끝날 때마다 전 시의 오욕에 찬 익살맞은 조롱을 우리 집 위에만 폭삭 뒤집어씌우고도, 진실로 늠름하고 의연히 고고해서 참으로 아름답기까지 해 보이는 부친의 배짱에 있었다. ㉠어쩐지 부친은 봄장마가 깨진 아스팔트 틈서리의 흙탕물을 튀기는 을씨년스런 한밤중에도 청명한 구름 속을 혼자 걷고 있는 듯했으며, 고독감에 몸을 떨며 내가 뒷간에 홀로 움치고 앉아 있을 때에도 그는 갓 벌어진 무슨 커다란 꽃봉오리 속에 의적이 따리를 틀고 있는 듯했던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는 합동 유세장에서 친구 최 씨를 만나게 되고, 최 씨는 유세장에서 아버지의 과거와 관련된 일을 빌미로 난동을 부린다.

분명치는 않아도, 부친이 채식을 그만둔 것은 그 이후부터다. 돌아오는 길에 부친은 가장 그럴싸하게 당신의 얼굴이 크게 찍힌 선거 벽보를 북 찢어 구겨서 잡담 제하고 그것을 길가에 던져 버렸는데, 무슨 변화와 동요가 부친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식을 폐하자 기뻐 날뛰던 것은 물론 그 **친척 참모들**이다. **순대구이거나 날치, 가자미 같은 것이 상 위에 올라오면 그것은 깜짝할 새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계면쩍다기보다 더러운 광경이었다. 부친은 글썽글썽해진 눈으로 가족들의 그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고기를 보니께 속이 꼬리꼬리하다……는 등 하는 친척들의 그 파렴치. 잘 씹어서…… 천천히…… 하고 주의를 소근거리는 **모친의 낭만.** 누이의 부어터진 얼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부친은 광 속에 자전거를 처박아 둔 채 운신을 안 했다.

얼음 운반은 물론 내가 대신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친은 62세였다. 보름 남짓을 앞에 둔 선거일이 빨리빨리 지나갔다. 서광삼 무표, 서광삼 무표, 서광삼 무표…….

그동안에 단 하루, 부친은 밖을 나갔을 뿐이다.

㉡“너 나하고 좀 나가자”고 부친이 말했을 때, 또 발작이 시작되나 부다 하고 생각했다. 내가 자전거를 끌고 나오자 부친은 그만두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들이 터벅터벅 걸어서 찾아간 곳은, 시가에서도 훨씬 떨어진 변두리 언덕 뒤에 숨듯이 하고 텅그마니 서 있던 도살장이었다. 그 일대는 분지처럼 지대가 낮아서, 잡초와 잡석과 황토가 작은 벌판을 이루고 개흙 바람에 눕고 있었으며, 잿빛의 긴 콘크리트 담으로 도수장\*은 네모지게, 철통같이 에워싸여 있었다. 그 무렵 부친의 심경에 도사리고 있던 민족과 시국에 대한 비전이 겨우 이 정도의 황량한 풍경이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곤 올빼미 눈 같은 동그란 두 개의 창문 외에는, 감기 든 코처럼 사방이 막힌 도수장 건물에서 부친은 도대체 무엇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일까. ‘서광삼 기호 3번’의 플래카드 광목을 품에서 꺼내더니, 부친은 그것을 어깨에 두르고 건물로 다가갔다. 부친은 문을 두들겼다. 정문의 빗장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주인을 찾는다고 부친이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가 말했다.

부친은 절을 하고, 무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열변을 토하는 부친** 앞에서 광 하고 철문은 닫혀 버렸다…….

㉢언덕마지로 돌아오자 부친은 잡초를 한 줌 훑어서 입에 넣고 그것을 질경질경 씹으면서, 무연히 눈앞의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르긴 하되 부친으로서, **정육점의 고기를 거덜 내는** 그 모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비결은 거기서 모든 덩어리가 흘러나오는 **도수장의 주인**을 구워삶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한 식경이 지난 뒤에 부친은 다시 담 밑으로 다가가서 그것을 두들겼으나, 이번에는 열리는가 하자 문은 닫혀 버렸다. 부친은 두말 않고 돌아서서 나더러 가자는 눈짓을 했다.

- 이제하, 「초식」

\***선량**: 뛰어난 인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뽑힌 인물. 국회의원 별칭.

\***도수장**: 고기를 얻기 위하여 소나 돼지 따위의 가축을 잡아 죽이는 곳. 도살장.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긍정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의 유일한 이해자인 ‘숙당 조문제 선생’은 아버지의 출마를 글에 대한 무지의 소치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
- ③ ‘나’는 아버지를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여긴다.
- ④ ‘나’는 외할머니와 모친 사이에 잠재된 종교적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연민하고 있다.
- ⑤ ‘나’는 아버지의 낙선이라는 결과보다는 낙선 뒤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배짱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한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유권자들의 연민을 이끌어 내려는 아버지의 의도가 드러난다.
- ② ㉡: 선거 결과에 대한 아버지의 절망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③ ㉢: 친척들과 가족의 행위에 대한 ‘나’의 연민이 드러난다.
- ④ ㉡: 아버지의 현실 도피적 태도에 대한 ‘나’의 비판적 시선이 드러난다.
- ⑤ ㉢: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난다.

24. **채식**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의 ‘채식’은 국회 의원 출마의 신호이다.
- ② 아버지의 ‘채식’은 자신의 꿈의 실현과 관계한다.
- ③ 아버지의 ‘채식’은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이다.
- ④ 아버지의 ‘채식’은 ‘나’에게 성경에 연원을 둔 기묘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 ⑤ 아버지의 ‘채식’은 흉흉한 난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탈속 의지의 표출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초식」은 폭력과 비순수로 표상화된 '육식'의 세계에 맞서려는 개인의 투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초식」에서는 육식 세계의 삶의 논리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낯고 부조리한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을 상실한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초식」의 '아버지'가 출마할 때마다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행위는 단순한 섭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를 오랫동안 구울해 온 기존의 삶의 방식과 관습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육식의 세계에 대한 맞섬의 한 방식으로 채택한 개인의 특정 행위가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① 아버지가 '도미구이 접시를 한옆으로 슬그머니 밀어 놓고, 허탈한 얼굴로 시금치 접시로 젓가락을 가져'가는 것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꿔 보려는 각오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이웃이나 학교 동료들이 아버지의 선거 결과를 조롱하고 있는 것에서 세계와 맞서려는 개인의 특정 행위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아버지가 채식을 중단하자 '친척 참모들이 '순대구이거나 날치, 가자미 같은 것' 들을 왕성하게 즐기는 것에서 육식 세계의 삶의 논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도수장의 주인이 '열변을 토하는 부친'을 외면한 것에서 세계의 변화를 부정하는 인물의 형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아버지가 '정육점의 고기를 거덜 내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도수장의 주인과 공모하려는 것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신념을 접고 도수장 주인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 함을 엿볼 수 있겠군.

[26~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외국과의 무역 및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에서는 고용, 성장과 같은 대내 거시 경제 변수뿐 아니라 경상 수지와 같은 대외 거시 경제 변수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이때 경상 수지란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와,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말하며, 지급한 외화보다 벌어들인 외화가 많은 경우를 경상 수지 흑자, 적은 경우를 경상 수지 적자라 부른다.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 균형은 국민 소득을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외 균형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0으로 유지하는 것, 즉 경상 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목표가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자. 이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증가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거래의 규모가 커지면,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하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국내 화폐의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그런데 기존의 경제 상태가 경기 불황에 경상 수지 적자가 결합된 경우라면 재정 정책만으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 중 어느 하나를 목표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의 불균형은 그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 수단으로는 환율 정책을 들 수 있다. 불황에 경상 수지 적자가 수반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환율 인상 정책을 통해 국민 소득과 순수출을 모두 증가시킴으로써 대내외 균형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정 정책과 환율 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다. 재정 정책은 총수요의 크기에만 영향을 주는 지출 조정 정책이다. 반면에 환율 정책은 ㉤총수요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 전환 정책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인상될 경우 가계, 기업, 정부 등 국내 경제 주체들은 전체 지출 규모가 일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수입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지출을 늘리므로 총지출 규모의 변화 없이도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지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는 환율 정책 이외에도 관세, 수출 보조금, 수입 할당 등이 있다.

\*완전 고용 국민 소득: 한 나라에 존재하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생산 활동에 투입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국민 소득.

\*총수요: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 등으로 사려고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합.

(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된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환 본위제이면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의 금 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했다. 이를 통해 ㉧제1·2차 세계 대전 사이의 변동 환율제에서 벌어졌던 각국의 ㉨경쟁적 평가 절하와 이로 인한 국제 통화 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반면 일시적·구조적인 경상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환율 조정이 허용되었다.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환율 인상을 허용함으

로써, 환율을 유지한 채 경상 수지의 균형 회복을 위해 ㉔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게 되는 사태를 막으려 했다.

㉔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금 본위제\*하에서는 고정 환율을 통한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이 최고의 목표였으므로, 경상 수지 불균형은 전적으로 국내 가격의 변동으로 해결했다. 따라서 금 본위제하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은 보장되지만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경상 수지 적자국의 경우 적자만큼 통화 또는 금이 유출되므로 국내 경제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상품 및 노동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값싼 임금과 원자재를 기반으로 경쟁력이 회복되며 그 결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들어 경상 수지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반대로 경상 수지 흑자국의 경우 그만큼 통화량이 증대되어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곧 경쟁력의 저하로 귀결된다. 즉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게 되어 경상 수지 흑자가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경상 수지에 따라 국내 통화량과 국내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㉔금 본위제의 고정 환율제에서는 국내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에 비해 브레턴우즈 체제는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을 연계시켰던 것이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또 다른 요소는 극히 비자유주의적인 국제 금융 질서이다. 브레턴우즈 협정에서 고안된 국제 금융 질서는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개별 국가들에게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이다. 국제 금융의 자유화를 억제시킨 근본적 동기는 연계된 자유주의를 구현하려는 데 있었다. 첫째,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은 거시 경제 정책에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세, 인플레이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경우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이 원만히 작동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자본 통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하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 무역 질서가 위협을 받는다. 대규모 자본의 빈번한 이동은 환율 체제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각국의 경상 수지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결국 보호주의의 정치적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통제될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㉔고정 환율제와 독자적인 통화 정책,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통화 정책의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을 위해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브레턴우즈 체제에는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를 연계시킨 전후 국제 경제 질서의 성격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다.

\*온스(oz): 무게의 단위. 금 1온스는 약 31.1035g.

\*태환: 지폐를 정화(正貨)와 바꿈. 또는 그런 일.

\*금 본위제: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통화의 가치를 재는 제도.

2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 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으로 유지되고 경상 수지 균형이 달성되면,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외 균형이 모두 달성된다.
- ②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긴축적 재정 정책은 국내 이자율 상승을 통해 국외로의 자본 유출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③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환율 변화를 통해 순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재정 정책과 환율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여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수입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수요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더라도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27. (나)의 ㉑~㉔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에서는 ㉒와 같이 환율이 일정하게 고정되지만, 특별한 경우 ㉒와 같이 환율이 조정될 수 있었다.
- ② ㉒에서는 ㉒와 달리 각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정하여 국제 통화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 ③ ㉒에서는 ㉑와 달리 각국 통화의 가치가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었다.
- ④ ㉒에서는 ㉒와 달리 각국의 경상 수지 불균형은 국내 가격 변동에 의해 조정되었다.
- ⑤ ㉑와 ㉒는 모두 구조적인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하할 수 있었다.

28. (가)와 (나)를 참고할 때, ㉑과 ㉒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과 ㉒은 모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통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② ㉑과 ㉒은 모두 국내 경제 정책에 의해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③ ㉑은 재정 정책만 사용할 경우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상충되기 때문에, ㉒은 고정 환율제에서는 경상 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④ ㉑은 재정 정책으로 인한 국민 소득의 증가가 순수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㉒은 경상 수지 적자가 국내 상품과 노동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⑤ ㉑은 정책 수단이 대내 목표와 대외 목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㉒은 대내 경제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이 대외 경제 상황에 종속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29. (나)를 참고할 때, 연계된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국의 경제 정책적 자유주의와 국제적 무역 자유주의가 연계되어 있었다.
- ②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적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이 연계되어 있었다.
- ③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여, 고정 환율 유지에 따른 국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
- ④ 거시 경제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과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개별 국가의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 ⑤ 각국의 무역 정책이 보호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인 경상 수지 불균형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30. <보기>를 참고할 때,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불가능성 정리'에 따르면,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독자적 통화 정책과 환율 안정,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 통화량 증가에 따라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국제 이자율에 비해 국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한다.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통화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기존의 확장적 통화 정책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즉 정부는 확장적 통화 정책의 효과를 위해 환율 상승을 용인하거나 환율의 상승을 막기 위해 확장적 통화 정책에 반대되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 ①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해야 환율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통화 정책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환율 운용을 모두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 ③ 개방 경제에서는 통화 정책으로 인한 국내 이자율 변화 효과가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화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 ④ 고정 환율제하에서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경우, 통화 정책은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 ⑤ 통화 정책이 유발한 환율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국내 이자율의 변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31.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외화로 표시된 순수출액의 크기를
- ② ㉡: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 ③ ㉢: 국내 생산 재화와 수입재에 대한 지출 비율에
- ④ ㉣: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각국의 환율 인하 경쟁과
- ⑤ ㉤: 각국이 국내 경제에 대한 정책적 자율성을 상실하게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우유 배달을 하는 만석은 폐지를 줍던 송 씨와 우연한 사건으로 알게 되면서 송 씨를 좋아하게 되고 그녀를 자신의 방식대로 보살피며 지낸다. 한편 주차장 관리인인 장군봉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보살피며 힘겹게 살아간다.

(가) 동사무소 (낮)

송 씨를 끌고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 만석.

송 씨: 괜찮다니까요.

만석: ㉠참 말 많네. 따라만 오라니까.

송 씨의 손목을 잡고 연아 앞으로 다가가는 만석.

연아: (벌떡 일어서는) ..... 할아버지! 여긴 어떤 일이세요?

만석: 접때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돈 나온다 그랬지?

연아: 독거노인 보상 급여요?

만석: 얼마나 나와?

연아: (송 씨를 흘끗흘끗) 그거야 형편에 따라 다르죠. 자식이 있고 없고.....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도 나고.....

송 씨: (쳐다보는 눈길이 무안하다.) 됐어요. 전 괜찮아요. (못 참고 나간다.)

만석: (불잡고) 그놈의 괜찮다는 소리.....

만석, 송 씨의 손을 잡은 채.....

만석: (연아에게) 아 대충.....!!

사람들: (깜짝)

연아: (놀라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올걸요.

만석: 뭐! 얼마!

연아: 10만에서..... 15만.....

만석: 그걸 누구 코에 붙여..... 보일러 기름값도 안 되는데.....

송 씨: (멍) 그 많은 돈을..... 준다구요?

연아: 네.....!

송 씨: 한 달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인데..... 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아: (따라 인사하며) 제가 드리는 게 아니지요.....

진심으로 감사한 듯, 공손히 또 아주 깊이 절을 한다.  
동사무소 직원들 모두에게 하듯,

송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아: …….

깊이 허리를 숙이는 송 씨를 따라 연아도 얼떨결에 절을 한다.  
영문 모르고 덩달아 인사를 하는 직원들.

(경과)

연아의 주위에 옹기종기 모인 동사무소 직원들. 한마디씩 거든다.

직원들: ㉠“최대한 빨리 신청해 봐.” “독거노인 자금 혜택 자료 다 뽑아 냈지?”

연아: 할머니, 일단 주민 등록증 주세요.

송 씨: …… (머뭇)

연아: 주민 등록증요?

송 씨: …… 그게……. 없는데…….

연아: (놀라 보며) 뉁……? 아예 없으세요?

송 씨: (고개 떨구는)

송 씨, 대답을 못 하고 발끝만 바라본다.

만석: (끼어들고) 만들어. 당장 만들면…… 그럼 되잖아? 안 그래……?

송 씨: ㉡“그렇게 어거지 부리지 말아요. 우리처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랏일 하는 바쁜 분들인데…….

직원: 헛, 나랏일요……. 나랏일이래……. 아하하하……. 연아 씨, 급행으로 해 드려.

만석: 거참 시원시원하게 일들 잘하는구먼…….

연아: 그럼 일단 등록 신청부터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 씨: 송 씨요.

연아: 그다음은요?

송 씨: …… 그냥…… 송……. 그게……. (머뭇)

연아: …….

이때 만석 소리.

만석: 이뿐이야.

연아: 예?

만석: 이뿐이라니까…… 송이뿐!

연아: (송 씨에게) 진짜요?

만석: (버럭!)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송이뿐이라구.

송이뿐!

연아: (이름을 적는데……)

만석: 아니 이쁘다 할 때 이쁜 말고…… 송이…… 뿐이다 할 때 이쁜. 그래…… 빨리 써……!

연아, 얼떨결에 빈칸을 채우고…….

만석, 송 씨를 보며 눈을 찡긋…….

(나) 군봉의 과거

1. 가족사진을 찍고 있는 군봉과 가족들.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영옥. 택시 기사 유니폼을 입은 군봉, 군봉 처, 장남, 차남, 막내딸 영옥이 서 있다. 행복한 모습.

장남: 노후 걱정은 마세요. 저랑 상옥이랑 아들이 돌씩이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영옥: 히히…… 나도…… 시집 안 가고 아빠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건데…….

차남: 두 분은 꼭 제가 모시고 살 겁니다.

2. 군봉 부부와 첫째 아들과 며느리, 둘째, 영옥과 식사를 하고 있다.

첫째: 직장도 너무 멀고 해서…… 결혼하면 분가할 생각입니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며느리: ㉢자주 찾아뵙게요.

군봉(소리): 그렇게 큰아들이 떠났다.

3. 군봉 부부와 마주하고 앉은 둘째 아들 내외와 영옥.

둘째: ㉣죄송해요. 이 사람이 몸이 약해서…… 원래 장남인 형님이 모시는 게 맞잖아요.

군봉(소리): 한 번도 우리를 모셔 달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4. 방 안에 막내딸 영옥과 마주 앉은 군봉 부부. 건너편에 영옥 남편 될 남자가 앉아 있다.

군봉: (못마땅하게 남자를 보며) 뭐가 급해서 꼭 그렇게 서둘러 결혼해야겠니?

영옥: 죄송해요.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자주 찾아뵙게요.

군봉(소리): 그렇게 아이들이 떠나고 우린 그저 말만으로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5. 밥상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고 있는 군봉 부부.

군봉(소리): 우리는 이제 다시 부부다. 가족이었는데…….

군봉: 이제 당신과 나…… 다시 둘만 남았네.  
- 강풀 원작·이만희 각본, 「그대를 사랑합니다」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송 씨에 대한 만석의 애정 어린 행동이 드러나는 공간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 ② (가)에서는 주민 등록증조차 없는 송 씨의 상황을 제시하여 인물의 처지를 짐작하게 한다.
- ③ (가)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송 씨의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나)에서는 인물의 '소리'를 활용하여 군봉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른 인물의 내면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는 가족사진 촬영 장면과 자녀들과의 대화 장면을 연속으로 제시하면서 군봉 부부만 남게 된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 감사를 표하는 상대에 대한 사람들의 우호적인 관심이 드러난다.
- ③ ㉢: 숨기고픈 자신의 처지를 들춰내는 상대에게 분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 의례적인 표현으로 인물이 대화 상대에게 가지는 부담감이 담겨 있다.
- ⑤ ㉤: 기존에 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심리가 드러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노인들이 자식들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노인들은 경제적 곤궁을 겪으면서도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애뜻함을 전하고자 노력하면서 삶의 희망을 찾으려는 노인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감동을 전한다.

- ① '보상 급여'에 대해 '한 달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이라고 반응하는 송 씨를 통해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문제를 알 수 있군.
- ② 노후 걱정을 말라던 말과는 달리 하나씩 군봉 부부의 곁을 떠나는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 점점 소외되는 노인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주저하는 송 씨를 통해 그녀가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송 씨의 이름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아에게 보인 만석의 반응을 통해 송 씨에게 품은 애뜻한 마음을 들켜자 화가 난 만석의 마음을 알 수 있군.
- ⑤ 택시 기사를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군봉이 가족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던 모습과 달리 '다시 둘만 남았'다고 하는 것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알 수 있군.



[35~38] 다음은 수업 시간에 진행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몇 년 사이 유기 반려동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의 보호인에게 보유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토론 규칙과 예절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하며 찬성 1 토론자의 입문부터 듣겠습니다.

**찬성 1:**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정의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반려동물의 수와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유기 반려동물의 수가 2015년 8만여 마리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만여 마리에 이를 정도로 실태가 심각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370여 마리인 셈인데, 이 중 안락사와 자연사에 이르는 수도 약 170여 마리나 됩니다. 또한 유기 반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17년 155억여 원에서 2019년 232억여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낮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줄어들어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자연스럽게 줄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입을 통해 유기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소요되는 국가 재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등록된 반려동물의 종류와 수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쉽습니다. 법제화만 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사회자:** 네, 그럼 반대 2 토론자는 반대신문을 해 주십시오.

[A]

**반대 2:**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면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자연스럽게 줄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찬성 1:** 보유세 부과에 따라 유기 반려동물의 수가 줄었음을 보여 주는 직접적인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반려견 세금이 있는 독일의 경우 반려견 수는 800만 마리에 육박하지만 유기 반려견의 수는 당국이 파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영국은 1987년 반려견 보유세를 폐지했는데, 이후 반려견이 유기되는 사례가 늘면서 보유세 재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반대 2:**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원인이 주인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1:** 그렇습니다.

**반대 2:** 그렇다면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반려동물 보호인의 태도가 책임감 있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성 1:**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유기 반려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별다른 책임 의식이 요구되지 않은 채 생명이 너무나도 쉽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보호인들의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인들의 책임 의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1 토론자의 입문이 있겠습니다.

**반대 1:** 증가 추세를 보이던 유기 반려동물의 수가 2020년에는 전년도보다 3.6% 감소하여 6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또한 유기 동물 입양 센터 설립, 유기 동물 입양 지원금 제도 신설과 같

이 유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유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유기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문제는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는 오히려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의 부재로 인해 반려동물 치료에 지출하게 되는 높은 비용이 반려동물 보호인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유기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한 세입보다 더 크게 되어 오히려 국가 재정 소요가 늘 것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고양이를 비롯해 다양한 반려동물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마치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저로서는 불쾌한 일이며 이 때문에 보유세에 강한 거부감이 듭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는 즉각적인 시행이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찬성 1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35. 위 토론 논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상황에 대해 어떤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논제이다.
- ② 특정 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밝혀 규범의 가치에 합의하기 위한 논제이다.
- ③ 특정 현안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이 더 실현 가능한지를 밝혀 최선의 방안을 정하기 위한 논제이다.
- ④ 특정 정책에 대해 그 정책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지를 밝혀 정책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제이다.
- ⑤ 특정 현상에 대해 어떤 이론이 더 설득력 있는 관점인지를 밝혀 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제이다.

36.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토론 논제에 사용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실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새로운 제도의 기대 효과와 시행의 용이함을 근거로 들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기존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를 근거로 들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37. [A]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이 반대 2의 발언이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은 반대 2의 문제 제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군.
- ② 찬성 1이 반대 2의 발언을 일부 수용한 것은 반대 2가 지적하려 한 논리적 허점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군.
- ③ 찬성 1이 반대 2에게 입론에서 언급했던 발언의 근거를 제시한 것은 반대 2의 반대 신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군.
- ④ 반대 2가 찬성 1의 발언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찬성 1의 입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군.
- ⑤ 반대 2가 찬성 1에게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것은 반대 2의 반대 신문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군.

38.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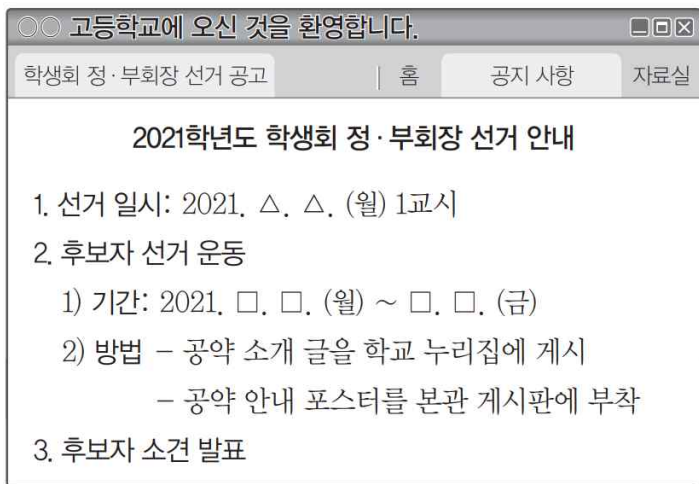
— <보 기> —

반대 신문에서는 상대측이 말한 범위 내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하며, 상대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대측이 제시한 의견의 근거가 충분하고 객관적인지, 상대의 발언 내용이 이치에 맞는지, 활용한 자료에 정확한 출처가 있는지, 발언 내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등을 기준으로 상대측 발언의 오류와 허점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상대측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추가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개방형 질문보다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질문을 한다.

- ① 반려동물 보호인이 반려동물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원인이 반려동물 의료 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조사 내용은 어느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까?
- ②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로는 반려동물 보유세의 즉각적인 시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반려동물 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③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느끼게 하는 보유세에 거부감이 든다고 하셨는데, 보유세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토론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앞세워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까?
- ④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면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여 유기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세입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많은 조사 사례가 있습니까?
- 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셨는데, 반려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세금을 쓰는 것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도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니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39~42] (가)는 학교 누리집의 학생회 선거 공고문이고, (나)는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후보자가 작성한 공약 소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 후보자:** 선거 운동 관련해서 공약 소개 글을 게시해야 하는데 너희들 도움이 좀 필요해.
- 학생 1:** 네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학생 청원제' 말이구나?
- 후보자:** 응. 공약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막막하네.
- 학생 1:** 공약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공약의 취지와 실현 과정, 기대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아닐까?
- 학생 2:**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글의 첫 부분일 것 같아. ㉠학생들에게 생소한 제도인 만큼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경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학생 1:** 나도 동의! 일단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테니까.

**후보자:** 맞아. 그리고 공약을 소개하는 글이니 학생 청원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리고,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학생 2:** 그래. 학생 청원제의 개념과 취지를 먼저 밝힌 다음,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청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해야만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후보자:** ㉡참여의 방법과 진행 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말해 줘.

**학생 2:** 청원의 진행 과정을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몇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제시하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그런데 너의 공약에 비판적인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맹점도 솔직하게 제시하면서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실명 공개와 관련해서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후보자:** ㉣장단점을 모두 소개하는 솔직함도 좋지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즉 접근성도 좋고 실명 공개에 대한 부담도 없는 그런 방법 말이야.

**학생 2:** ㉤역시, 학생회장 후보는 다르구나! 글의 마지막 부분도 너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공약의 핵심 내용으로 마무리하면서 재치 있게 한 표 당부하는 것도 잊지 말고.

**후보자:** 고마워. 너희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소개 글을 작성해 볼게.

(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후보자 ◇◇◇입니다.

'늘 배고픈 우리들의 꿈, 학교 매점 신설', '벗어 놓은 교복 상의 때문에 너저분한 교실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옷걸이 비치', '빠격대는 노후 책걸상 교체' 등 평소에 친구들과 나눴던 불만이나 요구 사항들, 너무 많지요? 지금까지 생각만 하셨다고요? 저 ◇◇◇에 투표하시면 이런 생각이 실현됩니다. 청와대에 국민을 위한 청원제가 있다면, ○○고에는 여러분을 위한 학생 청원제가 있습니다.

'○○고 학생 청원제'는 정부의 국민 청원제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학생 청원제는 학생이 학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희망 사항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 학생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학교가 답변함으로써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청원 참여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누리집에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명 공개에 대한 부담도 없도록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청원 글을 바로 작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간단하게 인증하면 특정 청원에 쉽게 '동의'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청원하고 학생이 직접 동의하는 그야말로 학생만의 청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청원에 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기된 청원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전교생 중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으로 성립됩니다. 이렇게 청원이 성립된 경우에 학생회장이 학교장의 의견을 듣고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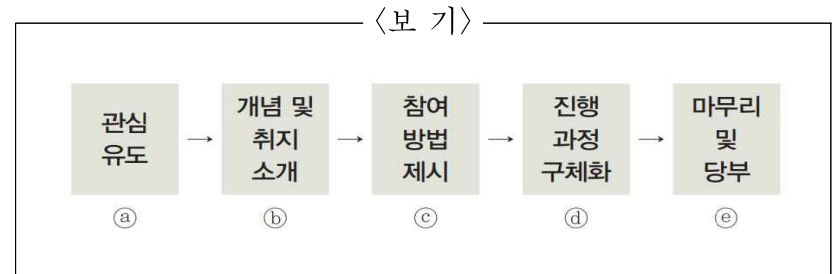
청원의 진행 과정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학교의 현안, 사업 등에 대한 학생의 신청으로 청원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청원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동의가 진행되는 단계이고, 3단계는 30일 동안 학생 300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원이 성립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청원 성립 건에 대해서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교장 선생님의 공식 답변을 듣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학생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학교가 직접 답변하며 소통하는 학생 청원제! 허무맹랑한 공약(空約)이 아닌 실천 가능한 공약(公約)이 될 수 있도록 저 ◇◇◇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9. (나)의 답화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의견에 대해 소개 글 첫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고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발화이다.
- ② ㉡: 상대의 제안 중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발화이다.
- ③ ㉢: 상대의 의견이 소개 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우려를 표하고 반대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④ ㉣: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문제를 보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⑤ ㉤: 상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글의 마지막 부분 작성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발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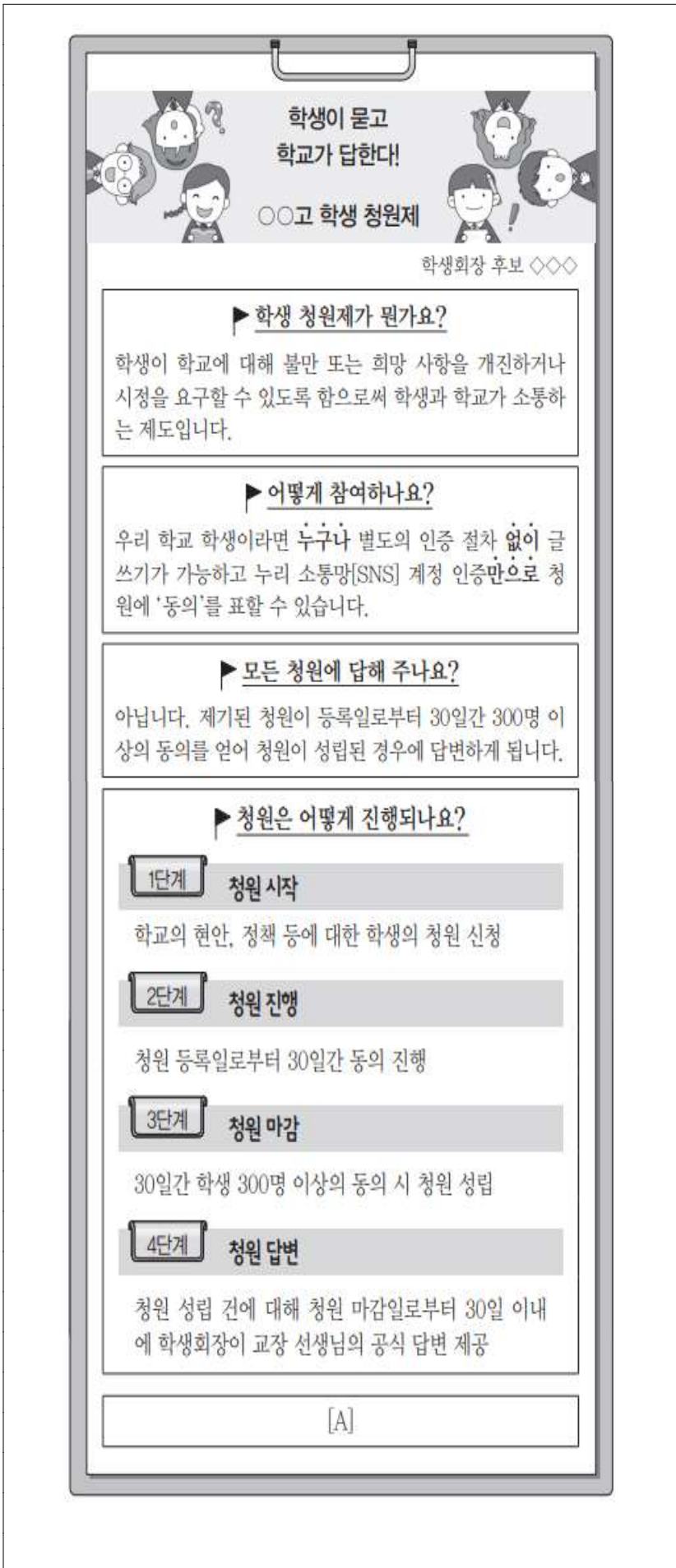
40. <보기>는 후보자가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쓰기 위해 작성한 글의 전개 과정이다. <보기>의 ㉠~㉥을 (나), (다)와 관련지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대화에서	(다)의 글에서
㉠	공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글의 첫 부분을 친숙하고 일상적인 경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라는 의견을 반영	평소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만이나 요구 사항을 나열하고 질문을 통해 화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
㉡	학생 청원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리기 위해 개념과 취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언급을 반영	정부의 국민 청원제를 모델로 한 것임을 알려 공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의의를 제시
㉢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청원 게시판과 실명 공개에 대한 부담이 없는 글 작성 및 동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시
㉣	청원의 진행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제시하면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반영	청원의 진행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
㉤	공약의 핵심 내용과 재치 있는 투표 당부로 마무리하라는 의견을 반영	공약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동음이의어를 활용하고 공약을 실천할 기회를 주기를 당부

- ① ①번
- ② ②번
- ③ ③번
- ④ ④번
- ⑤ ⑤번

41. 다음은 (가)에 따라 제작한 공약 안내 포스터이다. (다)를 바탕으로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후보자가 고려한 내용 중, 포스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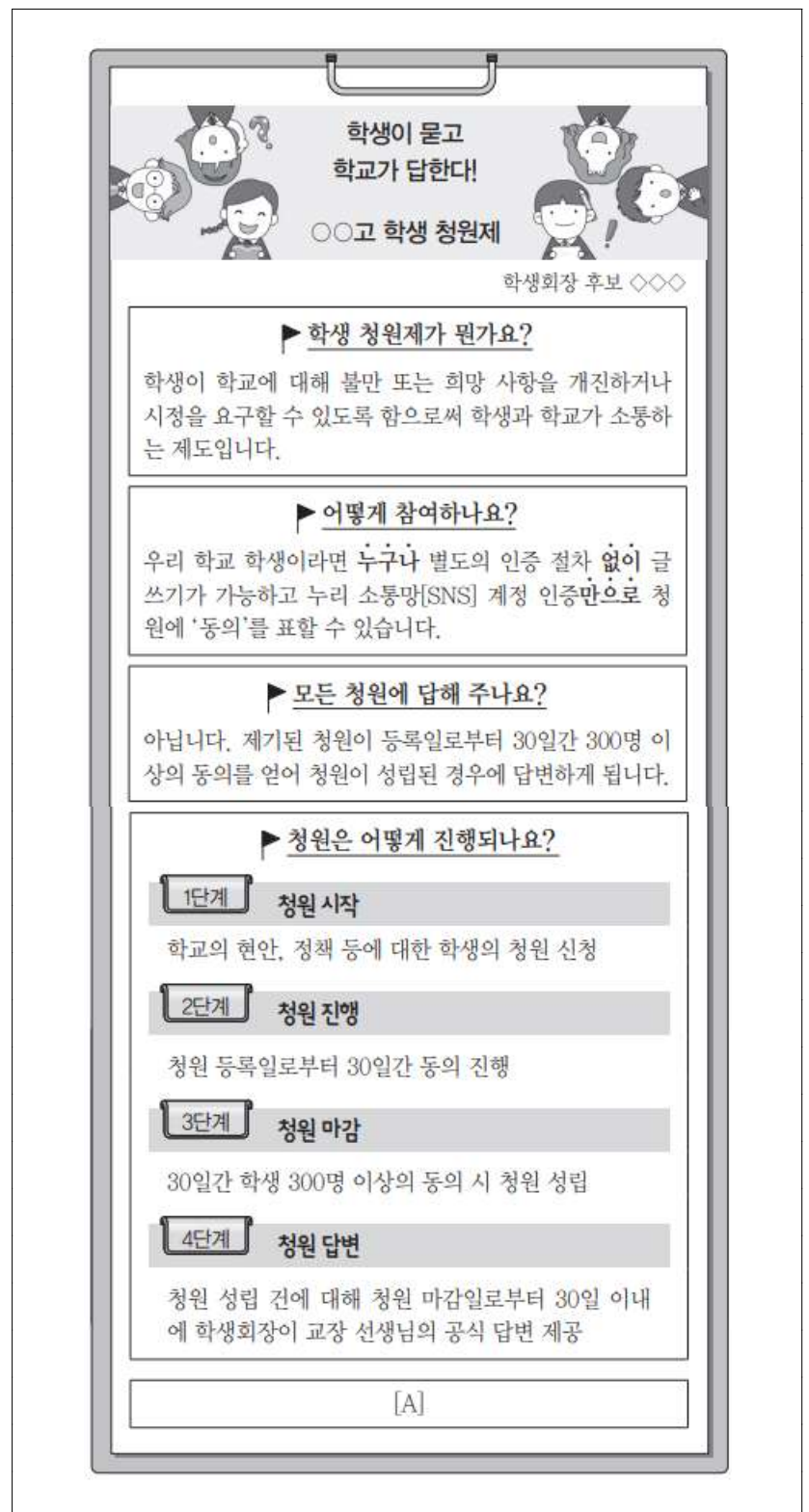
- ① (다)의 내용 중에서 공약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제시하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 ② 청원의 진행 과정은 청원을 신청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 전체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내용을 단계별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어.

③ 공약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포스터의 맨 위 칸에 제시하되, (다)와 달리 청와대 국민 청원제와 연결 짓지 않고 공약만을 간략하게 안내하는 것이 좋겠어.

④ (다)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청원 참여 방법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누구나', '없이', '만으로'와 같은 중요한 단어를 한 문장에 사용하여 눈에 띄게 나타냄으로써 시각적으로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

⑤ (다)에서는 청원의 성립과 답변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한 문단으로 다뤘지만, 포스터의 특성상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고 청원의 진행 과정을 안내하는 내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42. 다음은 (가)에 따라 제작한 공약 안내 포스터이다. <보기>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A]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1: 포스터의 첫머리와 같이 대구의 방법을 활용해서 학생 청원제의 특징을 한 번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소개 글의 마지막 문단에 쓰인 '소통'이라는 단어는 공약의 취지를 담고 있는 핵심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공약 실천의 의지를 드러내며 마무리하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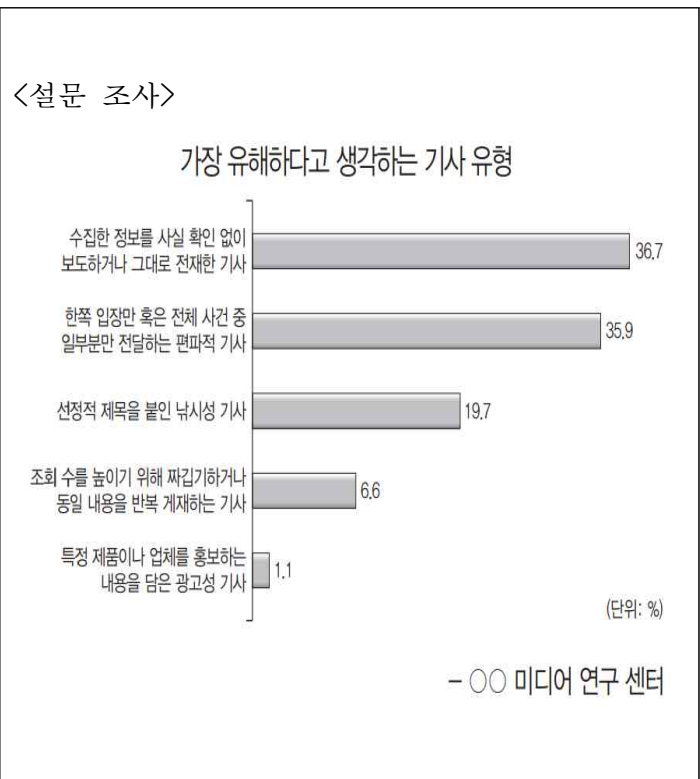
- ① 청원이 올라가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심부름은 저 ◇◇◇가 하겠습니다. 공약 실천의 기회를 주십시오.
- ② 소통의 통로만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소통의 노릇들이 될 학생 청원제 저 ◇◇◇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 ③ 여러분이 묻고 여러분이 답할 수 있습니다. 소통(疏通)으로 대통(大通)하는 학교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 ④ 학생이 묻기 전에 학교가 답하기 전에. 불만 없는 학교 희망하는 학교 소통을 위해 여러분의 한 표가 필요합니다.
- ⑤ 여러분이 물으시면 학교가 답하겠습니다. 청원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소통하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다니고 싶은 학교! 저 ◇◇◇에게 맡겨 주십시오.

[43~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학교 신문에 실을 기획 기사로,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글을 쓰고자 함.
- 예상 독자: 교내 학생들

[수집한 자료]



〈전문가 인터뷰〉

“낚시성 기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사의 수익 구조라고 봐야죠. 사람들의 83.1%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기 때문에 언론사는 인터넷으로 독자를 끌어들이야 합니다. 독자가 있어야 광고 수주를 하다 보니까 낚시성 기사에 집착을 하게 된 거죠.”  
- △△ 대학교 박□□ 교수

[초고]

[A] 흔히 언론을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언론이 실제로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론은 뉴스를 만들어 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는 수집한 정보를 속보로 보도하기 위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오보가 될 가능성이 큰데, 오보는 특히 재난 사고에 자주 등장한다. 한 예로 강원도 횡성에서 6.5의 지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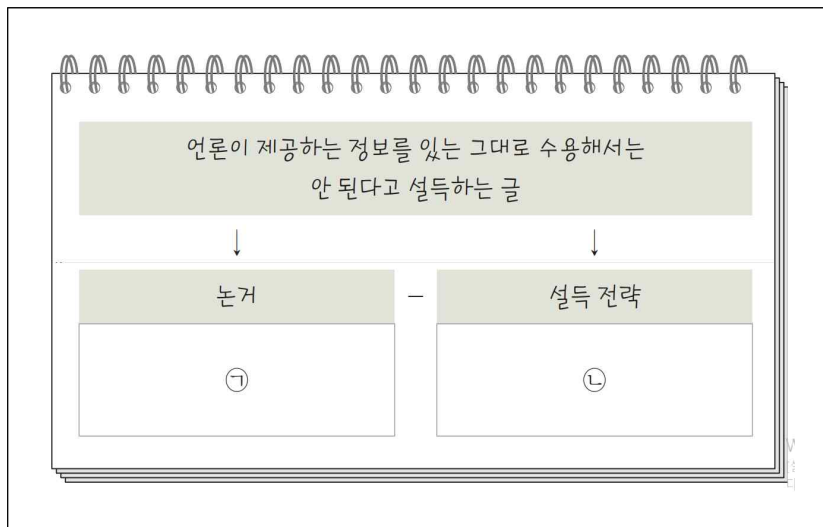
발생했다는 ◇◇일보의 속보는 기상청 직원이 실수로 보낸 통지문을 검증하지 않아서 난 오보로 황성이 아니라 예과도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포털 사이트로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에 먼저 속보를 내는 언론사는 수십 만의 조회 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간과하기도 한다.

언론은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훼손하기도 한다. 비판이 언론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비판 자체가 아니라 비판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유사한 사건을 사건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다루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판의 핵심은 헐뜯기가 아니고 사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비판이라는 미명하에 일관성 없는 편파적 보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독자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혜안을 지녀야 한다.

언론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사들을 과도하게 취재,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엘로저널리즘'이라 하는데, 살인 사건을 보도할 때 잔인한 표현이나 사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정적인 제목을 붙인 기사에 현혹되어 정보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낚시성 기사를 비판 없이 소비하는 독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언론의 속성을 고려할 때, 독자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거울을 보는 법을 익혀야 거울에 비친 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는 뉴스를 보는 눈과 판단력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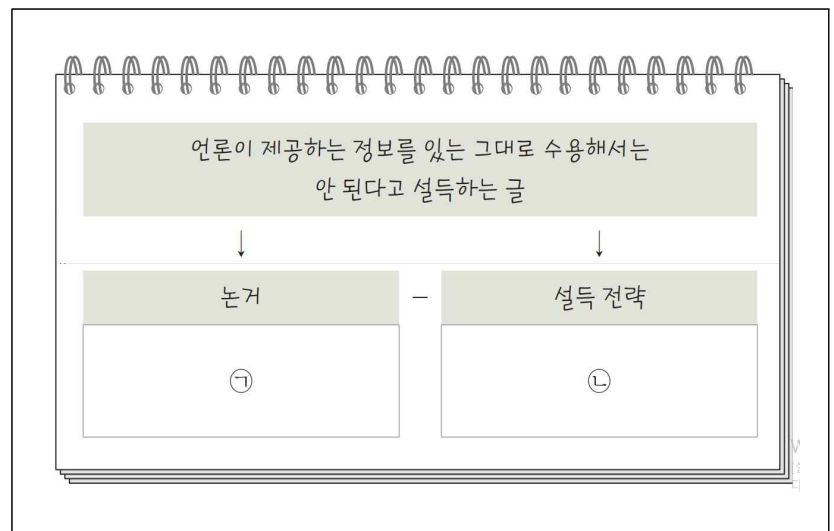
43. 다음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고'를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초고'를 바탕으로 할 때,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론이 고유한 역할인 비판을 수단으로 하여 일관성 없는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
- ② 언론사의 수익 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광고성 기사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 ③ 언론의 속보 경쟁으로 인해 정보의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오보가 발생한다.
- ④ 언론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 ⑤ 설문 조사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세 유형을 보면 언론이 사실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확인된다.

44. 다음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고'를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에서 계획한 내용으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논거가 타당함을 드러내기 위해 오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 ② 논거를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여 문제의 핵심을 강조한다.
- ③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언론의 고유한 속성을 밝힌다.
- ④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독자가 경험했을 만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취한다.
- ⑤ 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에 대한 통념을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다.

45. <보기 1>은 학교 신문 편집부의 '초고' 검토 의견이고, <보기 2>는 이를 바탕으로 [A]를 수정한 것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설득적인 글인 만큼 학생들이 첫 문단을 읽었을 때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즉 ㉠ 수정하면 좋겠어.

〈보기 2〉



흔히 언론을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거울이 어디를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오른쪽 그림에서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부분을 보자. 실제로는 뒷사람이 위협적인 도구를 들고 앞사람을 쫓아가고 앞사람은 도망가고 있는데,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마치 앞사람이 뒷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도망가고 있는 앞사람이 만약 당신이라면 이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이렇게 언론은 뉴스를 만들어 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도 한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①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언론의 필요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 ② 실제 사례를 나열하여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보도록 함으로써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문제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 ③ 독자들이 경험해 보았을 만한 사건을 시각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언론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주장에 공감할 수 있도록
- ④ 대립되는 견해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타당성에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 ⑤ 시각 자료를 활용해 해당 상황에 자신을 이입하여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